

개미 전기인의 신년 포부

주영훈 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



“58년 개미라고 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정치, 경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진출했고 끝없는 경쟁을 겪으며 단련한 이들이예요. 국가 고도성장에 기여해왔고,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죠. 저도 58년 개미로서 나라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막판 스퍼트를 올리겠습니다.”

주영훈 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국립군산대학교 교수)은 “58년 개미들의 정년퇴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에 58년 개미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 그 위 세대들은 퇴직할 상황”이라며 “저도 은퇴할 때까지 학계와 전기계, 에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학회는 전기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최대 학술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위상과 역할 면에서는 다소 정체됐다는 평가도 듣고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전기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에 비해 학회는 중심에 서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전기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접 분야 신기술을 수용하고 집중해 시대적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풍력과 인공지능, 제어, IoT 등 4차 산업

“국내 최대 학술단체 자부심 갖고 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에 목소리 낼 것”

한편, 전기관련 단체의 단합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먼저 전기학회 차기회장으로서 학문의 질을 높이고 학회의 위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움직임에서 전기인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차기회장은 “원자력과 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전기계 중심 학술단체인 전기학회의 참여가 미진하다. 전기학회에 모인 전기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또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움직임에 전기계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전기인들

혁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학회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 차기회장은 이와 함께 기본인 학문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회의 기본인 논문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학술대회를 유치해나가겠습니다. 부문회와 본부 학술대회는 물론, 국문 논문지, JEET, IJCAS 국제논문지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어요. 이를 위해 노력한 선배들의 뜻을 계승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논문지와 학술대회를 한층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저명한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해 우리 학회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김병일 기자

박동록 주삼영 대표



2017년 한 해는 성과와 과제가 공존했던 시기다. 매출신장률이 30% 이상일 정도로 바쁜 한해를 보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외주관리의 미흡함이 문제였다. 또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소기업 우선구매제 역시 활성화하지 못했다. 홍보 부족과 수요기관의 비선호 현상 때문이다.

또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남발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이슈이며, 조달 시장에서 NEP·NET·조달우수·성능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술인증과 실제로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것도

“배전반 외함사업, 협업 활성화 기대”

지난해의 사례를 교훈 삼아 2018년도에는 지난 4분기에 집중했던 배전반 외함 사업을 더욱 확대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해 온 기업인을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

생각해야 봐야 할 문제다. 이는 정상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신생·영세업체 육성을 막는 적폐다. 2018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종업체들과 함께하고 있는 배전반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기업으로 도약하고 싶다.

윤정일 기자 yunj@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



2017년도는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해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아픔을 겪었다.

사업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수준이나 실적은 전년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6년 7월 상장 이후 피앤씨테크는 큰 변화를 겪었다.

또 지난해 말 새롭게 전라도 나주 공장시대를 열었고, 올해는 신제품 출시계획도 갖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30% 이상 매출 상승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올해보다 30% 이상 매출 상승 목표”

인양공장을 리모델링해 생산시설을 확충했고, 최근 광명KTX역 인근에 1000평 규모의 사옥이 전 부지도 매입했다.

이처럼 피앤씨테크가 새로운 투자기회를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상장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해로 만들자고 임직원들과 다짐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두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기계도 상생을 통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윤정일 기자

전기공학계 넥스트 리더

(1) 이광운 목포해양대 교수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역할도 결코 빼놓을 수 없어요. 대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들도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광운 목포해양대 교수는 “이미 학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더 고민하고 보다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력하나마 저도 전공 분야에서 기술과 학문 발전에 힘쓰고, 우리 기업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삼성, 두산을 비롯한 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기 관련 산학연 관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 변화, 여론을 이끌고 있는 학계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연구·학술·정책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본문의 학문 발전과 산학협력 확대, 대정부활동 강화, 인재 발굴 등을 통해 변화를 정면 돌파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첨병에는 학계의 미래를 이끌 젊은 교수들이 적극 나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학계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젊은 교수들, 전기공학계 넥스트 리더를 만났다.

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본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모터 제어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대학으로 간 뒤에는 전공과 경험을 살려 냉장고 컴프레서 인버터 등 모터 제어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고 개선하는 등의 과제를 해왔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동로봇

등에 들어가는 구동모터와 컴프레서, 팬 모터 등 기술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제조 과정에서 협동로봇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모터 제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모터 제어는 이미 완성된 기술이지만, 완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일례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동로봇의 경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신뢰

“大·中企 R&D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수행 모터제어 기술 완성도 제고 위한 노력 경주”

의 서보모터 제어 알고리즘과 관련된 연구도 했습니다. 인버터라는 구동 회로를 사용, 모터의 가변속 제어를 통해 제품 성능을 올리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터 기술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산업계에 관련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졌고, 최근에는 기술 파트너를 찾는 기업들과 협동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 교수는 앞으로도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터 제어 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계속될 겁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성과 토크 제어, 품질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탁기의 진동을 줄이고, 가전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모터 제어 기술은 필수적이다. 속도는 IT 분야에 비해 느리지만 계속해서 요구가 나오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모터 제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위상각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운전점이 계속해서 변화해요. 이런 최적 운전점과 효율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일 기자 kube@

전기기기 단체표준 개발 설명회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실무자 교육



개요

- 목 적 :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 전기기기 단체표준 개발을 위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실무교육
- 일 시 : 2018. 1. 24 (수), 14:30 ~ 17:30
- 장 소 : 한국전기연구원(안산분원) 산학협력동 1층 강당
- 주 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참 석 : SPD, 차단기, 개폐기, 전선 및 공인검수 면제업체 담당자 등
- 참가비 : 무료

프로그램

시간계획	주요 내용	발 표
14:30 ~ 15:00	30분 · 설명회 등록 · 접수	-
15:00 ~ 15:05	5분 · 설명회 일정 안내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5:05 ~ 15:20	15분 · “SPD 외부분리기” 표준 개발 계획	한국전기연구원
15:20 ~ 15:35	15분 ·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표준 개발	LS전선(주)
15:35 ~ 15:50	15분 · “250km/h급 강제전차선(R-Bar) 시스템” 표준 개발	(주)평일/LS전선(주)
15:50 ~ 16:05	15분 · “전력반도체 모듈 평가” 표준 개발	단국대
16:05 ~ 16:20	15분	휴 식 (break time)
16:20 ~ 16:35	15분 · “145kV 복합 기술 개폐 장치” 표준 개발	인텍전기전자(주)
16:35 ~ 16:50	15분 · “72.5kV 친환경 가스차단기” 표준 개발	선도전기(주)
16:50 ~ 17:05	15분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무교육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7:05 ~ 17:30	25분 · 질의/응답, 의견수렴	-

* 프로그램은 사정상 일부 변동 가능

사전등록신청 및 문의처

- 사전등록 신청
 - 기간 : 2018. 1. 11 (목) ~ 1. 22 (월)
 - 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FAX(02-581-8605) 또는 e-mail(kkt0626@koema.or.kr) 접수
 - * 사전등록신청서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 설명회 장소 및 발표자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02-581-8601)
 - 담당 : 김광태 과장, 나동찬 대리